

“종이 서류 없애고, 예산 아끼고!” 교육부, 국민 삶 바꾼 우수공무원 시상

- 대입 청구 서류 간소화 등 국민 체감 성과 6건 선정해 현장 중심 혁신을 이어나
- 6.22.(월) 세종정부청사에서 제2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6월 22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제2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에서는 전문가 위주로 심사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국민과 동료 직원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전문가 서면심사와 국민 체감도 평가를 거쳐 1차 심사를 통과한 13건의 사례에 대해, 사례제출자가 전문가와 동료 직원 앞에서 직접 제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때 관심 있는 직원 누구나 발표 현장에 참여하며, 교육부의 우수사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 (1차 심사) 전문가 서면심사+국민투표(1,910명 참여) → (2차 현장발표) 전문가 심사+동료평가

그 결과, 정부 출범 이후 성과 중 6건(최우수 3건, 우수3건)을 특별성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최우수’는 ▲지방교육재정과 남기범 사무관 ▲직업교육정책과 김동현 주무관 ▲대입정책과 오명준 사무관이, ‘우수’는 ▲교육안전정책과 황남철 사무관 ▲교육콘텐츠정책과 조선혜 사무관 ▲디지털교육기반과 송미선 사무관이 제출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 선정 사례별 ‘주기여자’만 표기, ‘보조여자’ 포함 수상자 상세 명단은 [붙임3] 참조

‘최우수’ 선정 사례 건에는 각각 5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최우수’ 수상자인 남기범 사무관은 ‘케이(K)-에듀파인’과 ‘교육정보마이(e)’ 시스템에서 계약 및 대금 지급 요청 시 민원인이 국제·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 여부 등 각종 증빙 서류를 문서로 출력해 제출하는 과정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연계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계산서 활용 등의 비율이 기존 2%에서 17%로 8.5배(15%p) 늘었다. 서류를 따로 낼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 수천만 장의 종이를 아끼고 민원인의 서류 발급 비용과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얻었다.

김동현 주무관은 본인의 담당 업무가 아님에도 작년 국가 전산망 장애 시 직원들이 지(G)-드라이브 업무 파일을 복구하던 중 ‘확장자’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자동으로 복구하는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하였다. 현장 사례 발표에서 “본인의 업무가 아닌데 왜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라는 심사위원의 질문에 “옆에서 일하는 동료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싶었다.”라고 답하며 국민투표와 전문가 심사단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오명준 사무관은 그간 대입 특별전형 운영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학생들이 대입 특별전형 지원 시 동일한 서류를 수시지원 최대 횟수인 6회까지 반복 인쇄하며 우편·방문 제출하는 현장 접수 관행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출 방식의 변경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대입원서 제출 과정에서 장애인, 도서·벽지 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의 보호에 기여하였다.

‘우수’ 선정 사례 건에는 각각 3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우수’ 수상자인 황남철 사무관은 기후위기로 인한 학교시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 발생 시 ‘알림-점검-신고’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데이터 기반 통합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피해 상황 전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95% 이상 단축하였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학교 현장의 재난 피해 복구를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전 예방 및 시설 보강 예산으로 전환하는 등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지원의 근거를 확보하였다.

조선혜 사무관은 일반교과서 최종본이 나온 뒤 이를 전자교과서를 제작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최종본 이전 감수본 단계에서 전자교과서 제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자교과서 제작을 위한 교육부-교과서 출판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각장애 학생들이 이번 2학기부터 기존보다 일찍 교과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송미선 사무관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사용되었던 디지털 기기(태블릿PC) 5,358대를 교육용으로 전환하여 국립학교에 보급했다. 학생들에게 1인 1기기 환경을 앞당겨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 예산을 약 17억 원 절감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혁규 심사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교육부의 정책이 국가행정의 틀을 바꾸고,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따뜻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라며, “특히, 시각장애인 교과서 보급이나 대입 서류 간소화처럼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줄인 성과가 돋보였다.”라고 평가했다.

심사위원 또한 “심사한 사례가 모두 좋았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낀 시간이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부의 정책들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소감을 표했다.

대면 평가의 사례 발표 현장에 참여한 교육부 직원은 “담당하지 않는 업무에는 관심을 두기 어려웠는데, 우리 부에서 발표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동료 직원들의 업무 노력과 열정에 공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다음 사례 발표 때에도 현장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직원들이 이뤄낸 혁신적인 성과들이 널리 알려져 국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제2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 개요
 2. 2026년 교육부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개요
 3. 특별성과 우수사례(6건)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장	정원숙 (044-203-6062)
		담당자	서기관	이인숙 (044-203-6063)
			주무관	한유진 (044-203-6068)



붙임 1 제2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 개요

□ 행사 개요

- (일시) '26. 6. 22.(월), 11:00~11:20(20분)
- (장소)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520호)
- (참석자) 교육부 장관, 수상자 등

□ 주요 내용

- 특별성과 우수사례 선정 직원 시상

□ 세부 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11:00~11:02	2' • 개회
11:02~11:17	15' • 포상금 수여 : 6명 - [최우수 / 500만원] 지방교육재정과 남기범 사무관, 유지나 주무관, 김혜정 주무관 - [최우수 / 500만원] 직업교육정책과 김동현 주무관 - [최우수 / 500만원] 대입정책과 오명준 사무관, 전기호 교육연구사, 조수빈 주무관 - [우수 / 300만원] 교육안전정책과 황남철 사무관, 심유지 주무관 - [우수 / 300만원] 교육콘텐츠정책과 조선희 사무관, 특수교육정책과 강민영 사무관 - [우수 / 300만원] 디지털교육기반과 송미선 사무관, 노남수 주무관 ※ 기념 촬영 포함
11:17~11:20	3' • 인사말씀(교육부 장관)

붙임 2

2026년 교육부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개요

□ 제도 개요

- (개념) 소관 업무 분야에서 통상적인 직무 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26년 신설)
- (근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
* (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혁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운영 방향)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실무자(개인)를 최우선으로 선발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의 지속적인 혁신 동력 정착 유도

□ 세부 운영기준

- (추천 대상) 본부 무보직 4급 이하, 무보직 장학관 이하
 - 혁신적 성과를 낸 공무원 개인(업무줄 포함) 추천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과·팀 전원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성과 결과일 경우 예외적으로 과·팀 전체를 추천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발굴 분야) ①국가 및 국민 이익 증진, ②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③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④기타(기관장이 인정한 우수사례)
- (선정 절차) 1차 심사(전문가 서면심사+국민투표) → 2차 대면평가(전문가+동료)
 - ※ 제1회 포상금 대상자 선정은 '25년 6월 새정부 출범 이후 성과에 대해 전문가 서면심사 후 자체심사위에서 결정(신속 추진)
 - (추천) 관리자나 동료 등이 혁신적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 추천
 - (시상) '26년 총 3회 특별성과 포상금 대상자 확정·시상 예정

□ 제2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추진 일정

일정	주요 내용	비고
4.17.~5.11.	• 제2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추진 안내 및 접수	
5.15.~5.25.	• 1차 전문가 서면 심사 및 국민투표, 동료평가자 모집	
6.12. 13:30	• 2차 대면평가(전문가 심사단 5명+동료평가자 10명)	현장발표
6.22. 11:00	•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교육부 장관)	

붙임 3

특별성과 우수사례(6건)

연번	수상자	주요 성과
1	[최우수] (주) 남기범 사무관 (보) 유지나 주무관 (보) 김혜정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실시간 정보연계 기반 대금청구 제출서류 간소화 체계 구축 : 수기 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전자증빙 자동화와 3세대 K-에듀파인 구축을 추진하여 전국 교육기관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재정의 투명성 강화 ※ K-에듀파인 처리 건수 : ①계약건수 연간 50만건 내외, ② 연간 지출 567만건(교육청 재무회계 119,271건+학교회계 5,549,976건) 이상
2	[최우수] (주) 김동현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활용 파일 확장자 자동 복구 알고리즘 설계 및 배포 : 국가 전산망 장애로 확장자가 삭제된 수천 개의 업무 파일을 AI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 복구함으로써, 행정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디지털 성과 창출
3	[최우수] (주) 오명준 사무관 (보) 전기호 교육연구사 (보) 조수빈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 특별전형 운영 관행 개선으로 국민 불편 해소 : 교육 취약계층 등의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시스템 구축과 농어촌학생 등의 합격 후 거주지 이전 시 입학 취소 방지 제도개선을 통해 학생·학부모 편의 증진
4	[우수] (주) 황남철 사무관 (보) 심유지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기반 선순환형 교육시설 재난예방대응 통합 체계 구축 : 복잡한 재난 정보 전달 체계를 모바일 기반의 '알림-점검-신고' 일괄 서비스로 개선하여 전달 속도를 95% 이상 단축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교육시설 안전 관리 체계로 전환
5	[우수] (주) 조선혜사무관 (보) 강민영 사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점자교과서 적기보급 체계 개선 :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점자교과서 제작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각장애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적기 보급하고 학습격차 해소
6	[우수] (주) 송미선 사무관 (보) 노남수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유휴 태블릿PC... 국립학교 학생 교육용으로 재탄생 : 인구주택총조사용 유휴 태블릿PC 5,358대를 국립학교에 무상 보급함으로써, 약 17억 원의 교육예산을 절감하고, 국립학교의 학생 대비 태블릿PC 보유율을 74.2%까지 대폭 향상

※ 수상자 : (주) 주기여자, (보) 보조기여자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실시간 정보연계 기반 대금청구 제출 서류 간소화 체계 구축

□ 추진배경

- 민원 서류 수기 처리로 인한 불편과 비효율을 개선하고, 정보유통 기반의 디지털 기반 행정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주요성과

- 전자세금계산서 기반 증빙 자동화 실현
 - 기존 수기 중심 증빙 등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
 - 서류 제출 없이 정보 조회로 대체하여 민원 편의성 획기적 개선
 - 연계 활용 비율 2%(2024) → 17%(2025)로 증가 (15%p 상승)
- 전국 단위 확산 가능한 행정 혁신 기반 마련
 - 2만여 교육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업무 처리 체계 구축
 - 연간 수십만 건 계약 및 수백만 건 지출 업무 효율화 기반 확보
 - 업무 담당자의 확인 절차 간소화 및 오류 감소
 - ※ 재무회계 119,271건, 학교회계 5,549,976건(24회계기준)
- 신속한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을 위한 3세대 K-에듀파인 기반마련 및 2026년 시스템분야 행정혁신 국가브랜드 대상수상(26.3)
 - K-에듀파인 운영환경 고도화 사업(3천억) 대기업참여 허용(과기정통부)
 - 2026년 매경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3년 연속 수상(매일경제)

□ 기대효과

- 국민의 반복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전국 교육청 및 학교 현장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고도화에 기여함
 - 국민: 서류 제출 부담 해소 및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
 - 기관: 업무 처리시간 단축 및 행정비용 절감
 - 국가: 데이터 기반 행정 정착 및 공공재정 투명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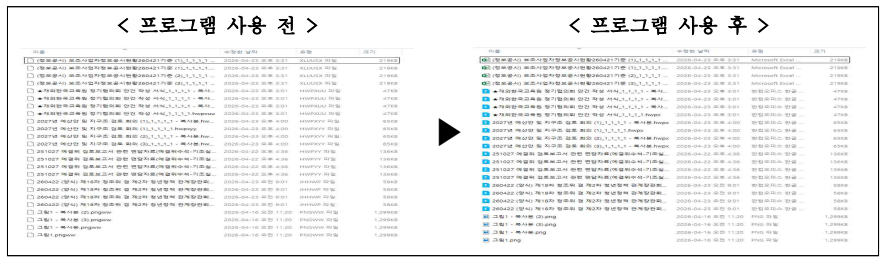
2 AI 활용 파일 확장자 자동 복구 알고리즘 설계 및 배포

□ 추진배경

- 2025년 9월 발생한 전산망 장애로 인해 직원들의 G드라이브* 업무 파일이 대거 유실되는 사태 발생
 - * 공무원이 각종 정책 자료 등을 중앙 서버에 저장하도록 구축된 '범정부 클라우드 시스템'
- 복구 과정에서 파일의 내용물은 보존되었으나 '확장자' 정보가 삭제되어, 수천 개의 파일을 열어 형식을 지정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 상황 발생
 - ※ 동료 주무관 사례: 3시간 동안 수작업으로 200개 미만 처리(전체 천개 대비 미미한 수준)

□ 주요성과

- 본인 담당 업무가 아님에도 타 부서 동료의 고충을 적극 수렴하여 AI 활용 확장자 자동 복구 알고리즘 설계 및 배포(25.10.01~10.07)
- 전부처 커뮤니티에 올라온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나, 한글(hwp) 문서 확장자를 판별하지 못하여 전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공유(25.10.13.)



□ 기대효과

- (행정 비용 및 시간 절감) 장시간 소요될 수천 개의 파일 복구 작업을 단 몇 분 만에 완료하여 업무 연속성 확보
- (디지털 성과 창출 사례 전파) 공무원이 직접 AI를 활용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AI 전환' 시대 실증 사례 제시

3 대입 특별전형 운영상 국민 불편 해소

□ 추진내용

- 더욱 편리한 대입 특별전형 운영을 위해 아래 두 가지 과제 개선
- ① 장애인, 도서·벽지 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이 대입 특별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반드시 우편·방문제출하던 관행 개선, 올해 정시부터 “대입 특별전형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시스템” 구축
 -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특별전형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② 올해부터 농어촌학생이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이후라면 입학취소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온라인제출) 특별전형 증빙서류 현장접수 관행으로 국민 불편 및 사회적 비용 발생(도서지역 미송달 우려, 거동이 제한된 장애인의 권리 제약 등)
 - * 그간 지원자는 동일한 서류를 6번 발급받아 지원한 대학에 모두 우편 또는 방문제출
- (농어촌전형) 합격 이후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 다발 및 해당 사례에 대한 일관된 판례의 권리구제 판시 등 대학-학생 간 불필요한 분쟁의 제도적 해소 필요성 존재

□ 주요성과

- (온라인제출)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올해 정시모집(27학년도 입시)부터 전자지갑을 활용한 온라인 제출 시스템 순차적* 도입
 - * 2027학년도 정시모집 시범적용 → 2028학년도 수시·정시모집으로 단계적 확대
- (농어촌전형) '26학년도 합격취소가 예정되었던 학생에 대한 권리구제 및 올해 대입전형(27학년도 대입)부터 관련 사례 재발 방지 가능

□ 기대효과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그간의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 학생·학부모의 편의성 제고 및 교육받을 권리의 최대한도 보장을 지원하는 등 대입 특별전형 운영 관련 국민 이익 증진

4 데이터 활용 교육시설 재난 예방·대응 체계 구축

□ 추진배경

- (대응 미흡) 기후위기 심화로 학교시설 피해가 지속되나, 사후 복구 중심 체계 및 학교 현장 전문성 부족으로 선제적 예방 기능 미흡
- (전파 지연) 재난 상황 발생 시 학교 현장까지 정보가 늦게 전달*되고, 안전사고 보고 절차가 복잡하여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
 - * 정보 전달 체계: 기상청(언론) → 교육부 → 시·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학교

□ 주요성과

- (대응 혁신) 재난 발생 즉시 '알림-점검-신고'가 한 번에 해결되는 현장 맞춤형 서비스 구현
 - 기상특보 발생 즉시 학교 담당자에게 맞춤형 학교시설 점검 요령을 알림톡으로 안내, 안전사고 발생 시 모바일로 바로 신고하는 체계 구축
 - 기상특보에 따른 학교시설 점검 요령 전파 시간 및 학교시설 안전사고 발생 신고 전달 속도가 기존 대비 95% 이상 단축
 - * 점검요령 전파 및 안전사고 전달 시간: (기초) 최소 4시간 소요 / (개선) 최대 10분 이내
- (행정 혁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적재적소 예산 집행 및 학교 현장 체감도 제고
 - 안전사고 -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교 현장 재난 예방에 활용되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지원 근거 확보
 - * (침수지역학교) 빗물유입방지 시설(치수판) 설치('25년 245개교(3,400M) 완료, '26년 6월까지 98개교(1,285M) 예정), (산사태 위험지역) 학교 주변 비탈면 보수 보강 사업 지원('24~)
 - '교육시설 재난 사전예방 알림톡' 학교 담당자 만족도 4.43점 달성('25. 10.)
 - 행정안전부 '침수흔적도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시설지도 활용' 우수사례(장려상) 수상('25. 11.)

□ 기대효과

- 데이터 기반의 예산 최적화 및 교육시설 안전 사업 발굴
 - (예산 운용 효율화) 재난 피해 복구 중심의 예산을 사전 예방('25~) 및 시설 보강 예산으로 전환하여 재난 관리 예산의 효율적 운용 도모
 - (신규사업 발굴) 축적된 안전사고·기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육시설 안전 예방 사업 발굴 및 교육시설 개선 사업 우선순위 결정 근거로 활용

5 시각장애학생 교과서 적기보급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서

□ 추진배경

- 점자교과서 적기보급은 시각장애학생·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부분이며, 보급 지연으로 인한 일반학생과의 학습격차 발생 우려
 - ※ 시각장애 학생·학부모·교사 17명,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 제기('25.11.)
- 관련 주체가 다양하여 특수교육정책과, 국립특수교육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교과서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여 수년간 개선이 어려웠음

□ 주요성과

- 대내·외 의견조율 및 협력, 민간과의 신뢰구축
 - (대내) 교육콘텐츠정책과·특수교육정책과, 점자교과서를 제작하는 국립특수교육원 간 협력을 통해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대외) 발행사 및 한국교과서협회의 점자교과서 관련 의식제고, 업무협약 참여독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프로그램 개선요청 등
- 법률 시행 이전 조기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실효성 확보 노력
 - 개정법률이 2학기 시작 이후('26.10.29.) 적용 예정이므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2학기 점자교과서도 제작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이행점검

□ 기대효과

- 개정법률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급체계 개선이 가능하지만, 적극적인 민·관협력으로 이번 2학기부터 보급일정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시각장애학생들이 이전보다 빠르게 교과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출발선 평등 및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6 국가 유휴 태블릿PC... 국립학교 학생 교육용으로 재탄생

□ 추진배경

- AI 교육·에듀테크 기반 디지털 기반 수업의 확산 대비 국립학교는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양질의 학생용 태블릿PC 확보·보급에 고민 가중
 - ※ '25년 말 국립학교 학생 대비 유효(내용연수) 태블릿PC 보유율 43.5% 수준이며, 디지털 교육 애로요인 설문결과 기기 부족이 45%

□ 주요성과

유휴자산 공유 및 활용 · 교육예산 절감 · 학교현장 지원을 통한 교육 집중 환경 조성

- ① 국가자산 재활용성 제고
- ② 17억 수준 예산절감 효과
- ③ 태블릿PC 보유율 30.7%↑

- ① 국가데이터처와 협력하여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사용으로 활용된 태블릿PC 5,358대를 교육용으로 전환·보급대상으로 확보(~'26.3.)
 - ※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되며, '25년 10월~11월에 실시되었고, 방문 조사 등에 신품 태블릿PC가 활용되어, 사용빈도가 낮아 상태가 매우 우수
- ② 태블릿PC 5,358대(32만원 단가)를 전량 25개 국립학교에 무상보급('26.4.)하여 17억여원 수준의 국립학교 태블릿PC 구매 예산절감 효과
- ③ 국립학교의 유효 태블릿PC 학생 대비 보유율 43.5% → 74.2%로 30.7%가 향상하여, 국립학교 ICT 수업 환경 디지털 교육 인프라 강화
- ④ 교육부 담당자의 일괄 업무처리*로 일선학교 담당자는 관련 행정절차(정보화물품 구매 심의위원회, 계약, 대금지급 등) 완전 생략으로 업무부담 완화
 - ※ 수요조사→필요수량 확보 협의→배송→학교별 수령확인→관리전환→점검필요대상 사후 조치

□ 기대효과

- **디지털 교육 가속화** 국립학교 학생 1인 1디지털기기 시대를 앞당겨 학생의 정보화 기기를 활용한 AI 및 디지털 교육 학습권 보장 기여
- **교육예산 선순환 기여** 국립학교의 정보화 물품 구매 예산 효율화로, 국립학교는 타 교육분야(교육과정 운영 등)로의 투자 전환 기회 확대